

로버트 배노이 , 대선지서, 5강

이사야 5:1-6:18 축복에 대한 심판

이사야 5:1-6:18 축복에 대한 심판

이 책의 처음 여섯 장의 마지막 부분인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으로 시작하여 미래의 축복으로 끝나는 두 부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아주 먼 미래, 즉 천년왕국의 심판과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는 현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먼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심판이 있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축복은 대부분 이사야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6장 1-13절로 끝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친숙한 장인데, 이사야가 주님의 환상을 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제단에서 솟을 취하여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세 부분을 통해 매우 먼 미래, 덜 먼 미래에서 이사야 자신과 동시대의 시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 일련의 비애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5장은 비애의 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실망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번에도 그림을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은 포도원의 그림이다. 5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파서 돌을 제하고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망대를 세웠고 포도주 틀도 파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나쁜 열매만 맺었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 포도원을 위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를 찾았더니 왜 나쁜 포도만 맺혔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그 성벽을 무너뜨려 짓밟힐 것이다. 내가 그곳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며,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경작되지도 않게 할 것이다.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거기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동산이로다 그는 공의를 바라셨으나 피흘림을 보셨고 의를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이 포도원을 그림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공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낭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그 이후에는 이 경건하지 않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일련의 여섯 가지 화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합하여 빈 곳이 남지 아니하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11절: “아침에 일어나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포도주에 취하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18절: “속이는 줄로 죄를 끌어들이고 수레줄로 악을 끌어들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는 데 영웅이 되고 술을 만드는 데 영웅이 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므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련의 재난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정원 가꾸기에서 이사야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고 나면 가뭄이 들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잊어 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작업과 노력을 -여기 이 경우에는 포도나무에 - 제가 포도원에 관해 읽은 바에 따르면 - 아주 까다로운 사업에 쏟았습니다. 개발에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글쎄요, 그냥 쟁기질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치시고 불에 던져 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13 선지자를 위한 축복

이것이 이 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5:1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의 장인 6장 1-13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축복은 주로 선지자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사야의 부르심에 익숙합니다. 나는 주로 선지자에게 말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장은 여전히 백성을 위한 축복의 말로 끝납니다. 6장 11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 버려지고 밭이 황폐하여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라.” 이것은 다가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멀리 보내시어 그 땅이 온전히 버림을 받을 때까지” 그러나 13절: “그리고 십분의 일이 땅에 남아 있을지라도 다시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나 상수리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찍힐 때에 그루터기가 남음 같이 거룩한 씨도 땅에서 그루터기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 생활 후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거나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그루터기가 있고, 그루터기에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지 개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것은 남은 것, 남은 생명에서 나오는 새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축복의 힌트가 있습니다. 렘넌트를 보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심판을 통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사야 7:12 임마누엘 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이사야서와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에는 이사야서 1-6장이 있습니다. 2는 7-12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조의 다음 부분입니다. 7장 14 절에서 임마누엘을 언급하기 때문에 종종 “임마누엘서” 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사야 7-12장 “임마누엘서” 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역사적 배경 [사. 7:1] 아하스와 앓수르의 동맹 7:1에서 읽어 보십시오.
 “웃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아람 왕 르신

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야 의 아들 베가가 앗수르 와 싸우려고 올라왔으나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더라. 이제 다윗의 집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아하스와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전 스케치입니다. 르신 과 베가 : 다메섹 사람 르신 과 북왕국 베가가 유다 왕 아하스를 쳤더라. 유다 사람들은 유다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합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강했고, 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더라. 7장 6절에서 공격의 목적을 읽어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를 치자. 우리가 그것을 찢고 우리끼리 나누어서 다브엘로 그 땅의 왕을 삼자.” 그래서 목적은 아하스를 대신하여 유다의 꼭두각시를 세워 그들과 협력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유다의 왕좌에 서서 그들과 협력하여 앗수르를 대적할 사람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아하스는 그들과 동맹하여 앗수르를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5절에 “그 때에 아람(시리아) 왕 르신 과 르 말랴 의 아들 베가 와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에워싸니라.” 7절을 보십시오. “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종이요 종이니라.” 올라와서 나를 치러 오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그리고 “앗시리아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 후에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가서 디글랏 빌레셀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사야 7장에 묘사된 상황에서 아하스가 르신 과 베가 에게 위협을 받을 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가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신저는 Tiglath-Pileser에게 공물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 여러분이 이 특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앓수르와 접촉했습니다 .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절입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 습 은 마지막에 아하스를 만나러 나가라” Washerman’s Field로 가는 길에 있는 Upper Pool의 수로에서.” 지리적 위치는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위쪽 못의 수로 끝”입니다. 그곳은 도시에 물 공급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아마도 그는 북쪽에서 오는 왕들의 공격에 맞서 도시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에게 “거기에 가서 이 말을 그에게 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4

절 이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조심하라, 침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르신 과 아람과 르말리야 의 아들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연기 나는 두 그루터기의 떨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너희를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자. 우리가 그것을 찢어서 우리끼리 나누고 다 브엘 의 아들로 그 땅의 왕을 삼자.”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루지 아니하지 아니하리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뿐임 이니라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너무도 흩어져서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뿐이니라. 네가 믿음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

이제 이사야는 앗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아하스의 계획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아하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왕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7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도무지 서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에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외세의 도움은 필요 없다” 는 것이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안전을 추구한다면, 즉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것은 당신의 파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전혀 서지 못하리라.”

이제 아하스의 반응은 회의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으면 주님께서 추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 물어보세요.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 이사야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곤비한 자에게는 너희가 작은 일이냐. 나의 하나님도 피곤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어야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땅이 그 두 왕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회의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 아들을 구하십시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들을 달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아하스는

경건한 말처럼 보이는 말로 그것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이유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는 이사야가 제안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 그가 원했던 것은 아시리아와의 동맹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르신 과 베가가 자신을 왕좌에서 밀어내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표적을 구함으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노라” 고 말하지만 이사야는 - 13절 - “이제 들으라 다윗의 집이여 곤비한 자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냐. 당신도 나의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비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임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표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석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 공격의 위협이 아하스가 앗수르와 동맹을 맺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왕하의 구절을 보면 그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왕하 16:5 “그들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그를 이기지 못하니라. 그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시리아에게 주었고” - 지금은

아카바 만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고 엘랏 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얼마간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거기 머물려고 엘랏 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들을 보냈더라.” 그는 아마도 그 공격을 예상하거나 심지어 공격 중에도 디글랏빌레셀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나는 Tiglath-Pileser가 초기 공격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심할 바 없이 레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안에 아시리아는 다마스쿠스를 공격했고 시리아의 위협은 실제로 파괴되었습니다. 초기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시점에 아시리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하스는 앗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사야 7:13-16 - 다양한 접근 방식 1. 전체 구절은 아하스와 관련된 즉각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7장 13-16절과 임마누엘의 표징에 이르면 이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3-16을 모두 즉각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시리아의 공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 그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만큼 성장하기 전에(16절), 그 두 적 왕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즉각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책망의 요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에 대한 책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징조는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아이가 아주 늙기 전에 이 왕들이 둘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책망할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위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피곤한 자에게는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당신도 나의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비난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어떤 면에서는 책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의 내용은 실제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에 나옵니다. ,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접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즉각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 구절에 있는 책망의 요소의 맥락에서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적용되는 신약성경 인용 에도 확실히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입니다.

2. 전체 구절이 그리스도를 언급함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일부 사람들이 전체 구절을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아하스의 무가치함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보좌에 앉을 합당한 사람, 즉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대신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견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견해의 어려움은 즉각적인 맥락과의 충분한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15절과 16절에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거든 버터와 꿀을 먹을지니라”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땅이 그 두 왕에게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그것은 확실히 당면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즉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첫 번째 견해는 13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접근 방식은 15절과 16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단순한 삶을 예측하려고 시도했지만 16절에서는 그

사실을 거의 알아챌 수 없습니다. 15절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3. 다중 성취: 아하스의 아들(히스기야)과 그리스도 이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앞의 두 가지 모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사람들이 다중 성취를 옹호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마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나 선지자 이사야의 자녀와 같은 현대의 어린이에게서 성취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현대의 어린이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발견합니다.

이 견해의 대표자는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이다. 인용문 13 페이지를 보면 구약 신학에 관한 그의 책에서 한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메시아적 위엄은 그가 스알야숨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선지자와 결혼한 어떤 처녀(처녀)에게서 태어난 이사야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카이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결혼할 수 있는 처녀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는 예언이 선포된 당시에 존재했던 특정한 이상적인 처녀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은 낮 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확실히 ‘처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자신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를 아하스 자신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하스의

어머니는 열왕기하 18장 2 절에 언급된 스가랴의 딸 아위 즉 그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이것이 더 오래된 유대 해석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히스기야는 7:14의 예언된 표징일 수 없다고도 추측된다. 왜냐하면 현재 연대기로 볼 때 히스기야는 그 당시 이미 9세였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사항은 채택되기 전에 철저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연대기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석학적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을 제쳐두어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요점을 논박하지 않고, “나는 오직 히스기야만이 이사야서 본문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기후에 맞는 메시아적 인물의 한 부분이자 핵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것을 담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여기에 그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에 예언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시니라.”

보시다시피, 그는 히스기야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지만 그는 예언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일부이자 핵심입니다. 이것은 카이저의 “일반적인 예언” 개념으로, 많은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개념에 의한 이중성취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비록 부정하더라도 이것이 ‘다중 성취’라는 점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히스기야와 그리스도 모두를 포괄하는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느낍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 중 가장 최근 부분인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능력과 임재 가운데 어떻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해석은 모두 즉각적이거나 모든 것이 미래이거나 Kaiser의 것과 같은 일종의 이중 성취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이중성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는 예언에 대한 이중 의미, 즉 다중 의미라는 해석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동정녀 탄생의 산물이었는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바노이의 견해: 아하스에 대한 책망과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이것으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에게는 책망이 되고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 경건한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리라.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청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 대한 책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합당한 왕좌를 차지할 사람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아직 그 땅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다른 청중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를 소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두 살이 되기 전에 땅은 침략한 왕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즉, 이사야는 다윗의 집에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지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신에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하느님도 피곤하시겠어요?” 그 당시 다윗의 집에는 주님의 뜻과 예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왕좌에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앓수르와의 동맹 속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사는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을 따를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대표자,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해석 문제의 핵심이다. 그것이 언제 올지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정상적인 임신 기간에 따라 태어난다면, 그가 몇 살이 되기 전에 위협적인 두 왕은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Robert Vasholz가 쓴 15페이지의 “이사야와 아하스: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위기에 대한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의 표징이 아하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하스의 불신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표징 구하기조차 거부한 다윗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표징이 주어질 것입니다. 태양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역전되는 표징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 표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낳은 것보다 더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장기적인 선언을 한 후에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즉
 평행 적인 시로 -에브라임 연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특히 발견되는 패턴을 따릅니다. 즉, 그는 동시대인이 관찰할 수 있는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
 는 마태가 성취했다고 기록한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의 장기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청중이 목격할 수 있는 이사야 7장 16절의 단기 예언입니다. 인용
 시트의 16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앤더스 존슨 (Anders Johson)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의 초기 편집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